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

이 종 봉
(부산대학교 교수)

차 례

- I. 머리말
- II. 대외관계의 전개와 부산
 - 1. 대당관계의 전개
 - 2. 대일관계의 전개
- III. 대외교류의 발달과 부산
 - 1. 대당·대일관계의 발달
 - 2. 대외교류의 주도세력
- IV. 맺음말

I. 머리말

대외교류의 발달은 정치적·경제적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삼국·통일신라시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신라는 인접 국가와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면, 이들 국가와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대외교류가 자연히 침체되었다. 그런데 대외교류는 고대국가의 형성이전과 이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신라는 5·6세기 고대국가의 형성단계로 발전할 무렵 각 정복지역에 대해 지역의 군현으로 편제하여 지역을 지배하였다. 이에 따라 신라는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지배세력을 신라의 지배세력으로 편입시키면서 그들이 소유하였던 독자적 대외교섭권을 박탈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각 지역 혹은 지역의 지배세력은 대외교섭권 자체가 국가권력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대외교섭에 참여하였다. 반면 신라 하대에는 중앙의 국가권력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국가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온 대외교섭권이 사실상 무너졌다.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던 지배세력은 독자적 대외교섭권을 가지면서 대외교류를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대외관계사는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중국 당과의 대외관계만 하더라도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¹⁾ 신라는 진평왕 43년(621) 대당외교를 맺은 이후 활발한 대당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문무왕 8년(688) 이후 당의 영토야욕과 신라의 백제·고구려의 영토회복과 맞물리면서 양국의 관계는 대립관계로 발전되어 정면 충돌하였다. 나당전쟁이후 문무왕은 4차

1)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1970 ; 申滢植, <韓國古代國家의 對中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90 ;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0000; 申滢植, <대당관계>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 1998.

에 걸친 명목상의 謝罪使를 파견하였고, 효소왕도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성덕왕대에 이르러서는 국교단절 45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간의 공적 혹은 사적인 대외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최근의 대외관계사 연구경향은 대당관계사보다 대일관계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²⁾ 일본인 연구자는 일본의 입장에서 신라·통일신라와 일본과의 대외관계사를 파악하였고,³⁾ 한국인 연구자는 한국의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⁴⁾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을 두고 서로 달리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하므로 객관적 이해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도 삼국·통일신라와 일본과의 대외관계사를 심화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전의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면서 대당·대일관계사를 정치사적 관점에서보다 대외교역,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⁵⁾ 이는 이전보다 신라와 대당·대일관계사의 연구를 심화시켰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삼국·통일신라시대의 대외관계사는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⁶⁾

2)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는 최근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대한 정리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연민수, <고대의 회고와 전망>『韓日關係史研究의 回顧와 展望』, 국학자료원, 2002).

3) 鈴木靖民,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1983; 濱田耕策, 『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石井正敏, <8·9世紀の日羅關係>『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1987.

4) 申滢植, <통일신라의 대일관계>『통일신라사연구』, 1990; 金恩淑, <8세기의 신라와 日本의 關係>『國史館論叢』29, 1991; 全基雄, <羅末麗初의 對日關係史研究>『韓國民族文化』9, 1997.

5) 尹載云, <9世紀 前半 新羅의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史叢』45, 1996; 윤선대,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바이시라기모쯔게」-쇼소인(正倉院)소장 「첩포기」의 해석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24, 1997; 李成市 著, 김창석 옮김,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신라·발해와 정창원 보물-』, 청년사, 1999.

본 연구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삼국 · 통일신라시대 대외교류를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삼국 · 통일신라시대 대당 · 대일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신라 · 당 · 일본의 정세변화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삼국 · 통일신라시대 대외관계의 변화 속에서 부산지역의 대외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이러한 대외교류를 주도한 세력은 어떤 세력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관계자료의 부족으로 논지의 전개에 다소 무모한 추측을 한 면이 없지 않았고, 삼국시대를 언급하여야 하지만 통일신라를 중심으로 서술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하는 바이다.⁷⁾

Ⅱ. 대외관계의 전개와 부산

1. 대당관계의 전개

삼국은 6·7세기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전개하는 한편,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대당 외교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삼국 중 대당외교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한 국가는 신라였다.⁸⁾ 신라는 眞平王 43년(621) 처음으로 당에 사신

-
- 6) 신라의 대외관계사는 대당 · 대일관계 외에도 서역과의 교역 등에 대해서도 연구되었는데, 다음의 논고가 대표된다(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李弘植博士回甲記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무함마드 간수, <新羅와 西域間의 文物交流>『新羅 · 西域交流史』, 檀國大 出版部, 1992).
 - 7) 삼국시대의 대외교류 분야에 대해서는 허재혁,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港都釜山』18, 2002; 선석열, <가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港都釜山』18, 2002 등에서 상당부분 언급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생략하였다.
 - 8) 申滢植, 『앞의 책』, 1984, 315쪽에서 삼국통일이전 대당조공은 고구려가 25회, 백제가 22회, 신라가 34회였음을 밝히고 있다.

을 파견하였다.⁹⁾ 아울러 진평왕은 46년 당의 高祖로부터 ‘柱國樂浪郡公新羅王’을 책봉받았다. 신라의 적극적인 대당외교는 대백제·고구려전쟁에서 양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신라가 善德女王 12년 당에 군사의 파견을 요청한 이후 眞德女王 2년, 武烈王 2년, 武烈王 6년, 文武王 6년에 이르기까지 전후 5차에 걸친 노력의 결과였다.¹⁰⁾ 이에 따라 통일이전 신라와 당과의 외교활동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면서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대당관계는 통일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문무왕 8년(668) 이후 당의 영토야욕과 신라의 고토회복, 백제·고구려유민의 흡수책 등이 충돌하면서 양국관계는 전면적인 대립관계로 변하였다. 문무왕 11년 石城전투에서 唐軍 5,300급을 목베었고,¹¹⁾ 동왕 10월에도 당의 수송선 70여척을 격파하였고,¹²⁾ 동왕 12년 7월에는 평양근교에서 당의 高侃·李謹行 등이 이끄는 5만군과 싸웠고,¹³⁾ 동왕 15년 9월에는 買肖城·七重城에서 당·契丹·靺鞨의 연합군과 싸웠고,¹⁴⁾ 동왕 16년 11월에는 所夫里州의 伎伐浦에서 크고 작은 22회의 싸움이 있었다.¹⁵⁾ 이에 따라 신라와 당의 외교관계는 신라의 고토장악 문제로 약 10여간 대립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 신라에서는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일련의 움직임도 있었다. 통일이후 신라는 문무왕 9년 당에 謝罪使를 파견하였지만¹⁶⁾ 관계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9)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眞平王 43年 7月條.

10) 『三國史記』권5, 新羅本紀 善德女王 12年 9月條; 眞德女王 2年 冬條; 武烈王 2年 正月條; 武烈王 6年 4月條; 권6, 文武王 6年 4月條.

11) 『三國史記』권7, 新羅本紀 文武王 11年 6月條.

12) 『三國史記』권7, 新羅本紀 文武王 11年 10月條.

13) 『三國史記』권7, 新羅本紀 文武王 12年 8月條.

14) 『三國史記』권7, 新羅本紀 文武王 15年 9月條.

15) 『三國史記』권7, 新羅本紀 文武王 16年 11月條.

16) 『三國史記』권6, 新羅本紀 文武王 9年 5月條.

이후 양국의 관계는 효소왕 8년(699) 당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¹⁷⁾ 이후 성덕왕은 2년에 사신을 당에 파견하여 조공한 것을 시작으로 37년까지 지속되었다.¹⁸⁾ 당시 신라의 사신은 당 현종으로부터 공식사절로 인정됨으로써 양국관계가 개선되었다. 이때 신라왕은 唐帝로부터 ‘驃騎將軍 特進 行左威衛 大將軍 使持節 大都督 鷄林州諸軍事 鷄林州刺史 上柱國 樂浪郡公 新羅王’이라는¹⁹⁾ 공식직함을 받아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이처럼 성덕왕대에는 당과의 친선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대당외교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즉 朝貢使를 비롯한 賀正使 · 宿衛 등의 계속되는 사절파견도 신라와 당과의 관계를 반영한다. 먼저 통일기 이후 당에 파견된 조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견되었는지를 다음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표 1> 통일기 이후 당의 조공사²⁰⁾

| 인 명 | 관 등 | 파견시기 | 사행의 목적 | 관련 활동 |
|-----|-----|--------------|--------|-----------|
| 金欽純 | 각간 | 문무왕 9년(669) | 謝罪 | 장군 |
| 良圖 | 파진찬 | " | " | |
| 祇珍山 | 급찬 | " | 磁石 헌납 | |
| 金福漢 | 대나마 | " | | |
| 原川 | 급찬 | 문무왕 12년(672) | 謝罪 | |
| 金思讓 | 아찬 | 성덕왕 3년(704) | | 最勝王經를 가져옴 |
| 金貞宗 | | " 12년(713) | 冊封 | |

17) 申滢植, 『앞의 책』, 1984.

18) 申滢植, <統一新羅의 大唐關係>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朝閣, 1984, 327 쪽에서 문무왕대부터 성덕왕 2년까지를 신라와 당은 국교단절의 상태었다고 한다.

19) 『三國史記』권8, 新羅本紀 聖德王 12年 10月條.

20) <표 1>의 조공사의 파견사례는 『삼국사기』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데, 인명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 따라서 신라에서 당에 파견된, 조공사는 위의 <표 1>에서 제시된 것보다 그 횟수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 인명 | 관등 | 파견시기 | 사행의 목적 | 관련 활동 |
|-----|------|--------------|--------|-------------|
| 金楓厚 | | " 14년(715) | | |
| 金新質 | 왕제 | " 25년(726) | | 郎將職을 제수받음 |
| 金相 | 대아찬 | 성덕왕 35년(736) | | 도중 사망 |
| 金隱居 | 이찬 | 혜공왕 3년(767) | | 반란을 도모함 |
| 金俊邕 | 대아찬 | 원성왕 5년(789) | | 소성왕으로 즉위 |
| 金彦昇 | 대아찬 | " 6년(790) | | 현덕왕으로 즉위 |
| 金陸珍 | 대아찬 | 애장왕 10년(809) | 謝恩 | |
| 金昌南 | 이찬 | 현덕왕 원년(809) | 告哀 | |
| 金張廉 | | " 9년(817) | | 王子 |
| 金能儒 | | 흥덕왕 6년(831) | | 王子, 귀국도중 死 |
| 元弘 | 아찬 | 문성왕 13년(851) | | 佛經과 佛牙를 가져옴 |
| 金富良 | 아찬 | 경문왕 2년(862) | | 도중 사망 |
| 金胤 | 소관 | " 9년(869) | 謝恩 | 王子 |
| 金處誨 | 병부시랑 | 진성왕 7년(893) | | 도중 사망 |
| 金樂 | 창부시랑 | 경명왕 7년(923) | | 후당에 파견 |
| 金幼卿 | 녹사참군 | " " | | " |
| 金岳 | 창부시랑 | " 8년(924) | | " |
| 張芬 | 병부시랑 | 경애왕 4년(927) | | " |
| 朴術洪 | 병부시랑 | " " | | " |
| 金岫 | 집사시랑 | 경순왕 6년(932) | | " |
| 李儒 | 사빈경 | " " | | " |

위의 <표 1>에 의하면 조공사는 통일기부터 신라말기까지 지속되었다. 앞서서도 서술한 것처럼 조공사는 성덕왕 3년부터 대대적으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덕왕 이후 신라의 대당관계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조공사의 관등은 급찬과 대나마도 있지만 아찬 이상의 고관으로 왕의 친족인 김씨들로 선발되었다. 그런데 10세기 초의 조공사는 김씨뿐만 아니라 이·박·장

씨 등의 성씨도 파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직을 가진 인물이 파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조공사가 대당관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기 이후 대당관계의 전개는 조공사만 파견되었던 것은 아니고, 賀正使·宿衛도 파견되었다. 하정사는 신년의 축하 사절로 성덕왕 13년(714) 朴裕²¹⁾가 파견된 이후 혜공왕 10년(774)까지 여러 차례 파견되었고,²²⁾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정사는 신라의 대당관계가 정착된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숙위²³⁾는 김춘추가 통일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들인 金文王과 金仁問을 진덕왕 2년(648)과 진덕왕 5년에 각각 숙위시킴으로써 비롯되었지만,²⁴⁾ 대당친선관계가 확립된 이후에는 성덕왕 13년(714)에 처음 이루어졌다.²⁵⁾ 이후 숙위는 신라하대 경문왕 10년(870)까지 지속되었다.²⁶⁾ 조공사와 하정사는 김씨 외에 다른 성씨의 인물이 파견되었지만 숙위의 경우는 김씨왕족들만이 파견되었다. 따라서 숙위는 신라하대 정치적 추방과 같은 인질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 외 신라의 대당외교는 告哀使·謝恩使·進賀使·請兵使·謝罪使란 이름을 가진 사절도 있었다.²⁷⁾

한편 신라에서 많은 사신이 당에 파견되자 당에서도 사절인 持節使를 신라에 파견하였다. 통일기 이후 당의 지절사는 문무왕

21) 『三國史記』권8, 新羅本紀 聖德王 13年 閏 2月條.

22) 『三國史記』권9, 新羅本紀 惠恭王 9年 4月條.

23) 숙위의 성격에 대해서는 왕자로서 당의 조정에서 시위하는 인질로 파악하는 견해(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1954), 다양한 외교기능을 다한 존재로서 신라통일전쟁이나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절로 파악하는 견해(신형식, <대외관계> 『한국사-통일신라-』9, 국사편찬위원회, 1998)로 대표된다.

24) 『三國史記』권5, 新羅本紀 眞德女王 3年과 5年條.

25) 『三國史記』권8, 新羅本紀 聖德王 13年 2月條.

26)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景文王 10年 2月條.

27) 신라의 대당사절의 파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90).

8년(668) 遼東道安撫副大使 遼東行軍副大摠管 劉仁軌가²⁸⁾ 파견된 것을 시작하여 경문왕 5년(865) 太子右諭德 御史中丞 胡歸厚까지 10여 차례 이루어졌다. 당의 지절사는 신라 견당사의 지위와 위치를 고려하여 대문호·석학 또는 정치적 위상이 높은 인물이 선발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를 君子之國·文化之鄉임을 인정하여 遣新羅使의 선발에 신중을 기하였기 때문이다.²⁹⁾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와 당은 삼국통일전쟁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었지만 성덕왕 이후 친선관계가 형성되면서 외교관계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양국간의 대외관계는 성덕왕 2년 이후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대외교류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도 신라와 당과의 대외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당의 지역과 대외교류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2. 대일관계의 전개

앞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 대당관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기에 신라의 대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각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와 일본과의 대외관계는 일본과 발해와의 관계 등에 의해 외교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신라는 7세기 후반 대당관계가 악화된 시기인 문무왕 8년(668)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활발한 대일외교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대일외교의 목적은 원래 양국이 백제부흥전쟁의 전제상대국이었으나,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의 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이었다.³⁰⁾ 이후 문무

28) 『三國史記』권6, 新羅本紀 文武王 8年 6月條.

29) 申滢植, <앞의 글>, 1998, 279쪽.

30) 金恩淑, <앞의 논문>, 1991.

왕대에는 동왕 21년(681)까지 12회의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다.³¹⁾ 문무왕대의 활발한 대일관계는 신문왕대에도 지속되었다. 신문왕대에는 1년(681) 10월 沙啄 一吉 滄 金忠平·大奈麻 金壹世가 파견된 것을 시작으로 신문왕 12년(692) 11월까지 8회의 사신을 파견하였다.³²⁾ 효소왕대에도 대일관계는 지속되었다. 따라서 7세기 후반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우호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³³⁾

한편 8세기에는 앞서서도 서술한 것처럼 신라의 대당관계가 개선되었다. 신라의 일본과의 관계는 7세기 후반과 같을 수 없었지만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은 혜공왕 15년(779) 공식적으로 파견될 때까지 지속되었다.³⁴⁾ 그런데 일본은 701년 大寶律令을 완성하여 율령국가체제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신라와 일본은 8세기 전반에 외교형식을 두고 갈등하기 시작하였다.³⁵⁾

특히 성덕왕 26년(727) 일본과 발해는 사신을 파견하여 양국 간의 국교를 개시하였다. 이는 발해가 대당관계의 긴장과 신라와 당과의 관계진전 등의 주변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을 시도한 것이다.³⁶⁾ 그런데 신라와 일본은 성덕왕 25년(726)에서 성덕왕 33년(734)까지 양국 사이에 사신의 파견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양국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일본국의 병선 3백 척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의 동쪽 변방을 습격하였으므로 왕은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를 내어 크게 부수었다’고

31) 濱田耕策, <新羅人の渡日活動>『新羅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2002, 306~309쪽 참조.

32) 金恩淑, <앞의 논문>; 濱田耕策, 『앞의 책』, 309~312쪽.

33)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는 『일본서기』의 자료내용을 비판하여 한일관계를 검토한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金恩淑, <앞의 논문>).

34) 金恩淑, <앞의 글>, 106쪽 <표 1>을 참조.

35) 金恩淑, <앞의 글>, 108쪽에서 일본은 천황제 율령국가체제에 입각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신라를 藩國으로 하위에 두려고 하였고, 신라 역시 대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을 하위에 두려는 입장을 가졌다고 하였다.

36) 酒寄雅志, <8世紀における日本の外交と東アジアの情勢>『國史學』103, 1977.

기록하고 있다.³⁷⁾ 그리고 『續日本記』에는 ‘신라국이 갑자기 본래의 이름을 바꾸어 王城國이라 하였으므로 이 때문에 신라의 사신을 돌려보냈다’고 하거나,³⁸⁾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그 까닭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고 혹은 군대를 보내어 정벌해야 한다고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³⁹⁾ 따라서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8세기 초·중반에 이르러 신라와 당과의 관계개선과 일본과 발해와의 관계개선, 그리고 신라와 일본간의 외교형식문제로 긴장관계가 초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신라는 8세기 중반 외교형식을 두고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일본이 요구하는 형식을 무시하고 사행의 중요 목적을 통상에 두고 계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다.⁴⁰⁾ 하지만 『續日本記』에 신라의 사신이 왔으나 새로운 수도 창건으로 宮室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大宰府에서 돌려보냈고,⁴¹⁾ 『三國史記』에는 경덕왕 원년(742) 일본국의 사신을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있다.⁴²⁾ 이듬해 신라는 일본에 보내는 물건의 명칭을 ‘調’ 대신에 ‘土毛’로 표현함으로써 사신이 되돌아오는 상황을 야기시켰다.⁴³⁾ 따라서 신라와 일본은 양국간의 사신교환은 이루어져왔지만 외교형식을 두고 갈등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양국은 743년부터 752년 1월 일본측에서 사신이 새롭게 파견되고,⁴⁴⁾ 신라에서도 동년 3월 왕자 金泰廉이 일행 700여인을 동반하고 7척의 배로 일본을 방문할 때까지⁴⁵⁾ 거의 국교단절

37) 『三國史記』권8, 新羅本紀 聖德王 30年 4月條.

38) 『續日本紀』권12, 天平 7年 2月 癸丑條.

39) 『續日本記』권12, 天平 9年 2月 丙寅條.

40) 金恩淑, <앞의 글>, 106쪽 <표 1>을 참조; 內藤雋輔, <新羅人の海上活動について>『朝鮮史研究』, 東洋史研究會, 1961, 338쪽.

41) 『續日本記』권14, 天平 14年 2月 庚辰條.

42) 『三國史記』권9, 新羅本紀 景德王 元年 10月條.

43) 『續日本記』권15, 天平 15年 3·4月條.

44) 『續日本記』권18, 天平勝寶 4年 正月 癸卯條.

45) 『續日本記』권18, 天平勝寶 4年 閏三月 己巳條.

의 상태에 이르렀다.⁴⁶⁾ 이듬해에는 당나라에서 신라와 일본사신과의 자리다툼이 발생하였고,⁴⁷⁾ 이러한 사실이 일본 내에 알려지면서 반신라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淳仁 3년(759) 6월부터 신라정벌을 계획하였다.⁴⁸⁾ 太宰府로 하여금 行軍式을 만들게 하였던 것도 이때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라정벌의 계획은 순인 6년(762) 11월까지 군사훈련을 시키기도 하였다.⁴⁹⁾ 그러나 신라 정벌계획은 藤原仲麻呂의 세력 약화와 함께 계획대로 실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신라와 일본과의 대외관계는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신라는 경덕왕 22년(763)에 급찬 金體信 이하 211인을 사신을 파견하였고,⁵⁰⁾ 이듬해 23년에는 대나마 金才伯 이하 91명의 사신을 유학승 戒融의 귀국 후의 소식을 알아 봐 달라는 칙사의 요청을 구실로 파견하였다.⁵¹⁾ 이때 신라의 사신 파견의 특징은 집사부의牒을 태재부에 보내었다. 이는 대외교섭에서 집사부와 함께 태재부가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신라와 일본의 대외관계가 집사성과 태재부간의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역을 위한

46) 8세기 중반 신라에서 왕자 金泰廉 일행의 파견목적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발해와의 충돌과 일본과 발해의 공동전선에 의한 군사적 공격을 우려하여 신라가 조공한 것이라는 정치적 목적인 강한 견사로 파는 입장(酒寄雅志, <앞의 글>)과 양국의 친선의 입장에서 東大寺의 대불개안을 축하하는 사절이라고 보는 입장(濱田耕策, <新羅聖德王·景德王代の外交>『앞의 책』)과 신라의 사신파견은 정치적 입장보다는 경제적 입장을 강조하려는 즉 무역의 목적이 강했을 것이라는 견해(東野治之, <正倉院文書からみた新羅文物>『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47, 1980) 등이 있다. 한편 최근에는 대규모의 교역도 특권적 지배층의 결집을 통해 兩國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한 견해도 있다(李成市, <新羅と日本-8世紀の交流を中心 に->, 1996년 미국 하와이대학 주최 국제한국학학술대회 발표문, 1996).

47) 『續日本記』권19, 天平勝寶 6年 正月 丙寅條.

48) 『續日本記』권22, 淳仁 3年 6月 壬子條.

49) 『續日本記』권24, 淳仁 7年 11월 庚寅條.

50) 『續日本記』권24, 淳仁 7年 2月 癸未條.

51) 『續日本記』권25, 淳仁 8年 7月 甲寅條.

경제적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따라 양국의 교섭은 사신을 매개로 하는 정부대 정부의 교섭이 아니라, 민간 상인에 의해 주도되는 교류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었다.⁵²⁾ 실제 9세기 초에는 신라 상인의 활동의 모습들이 일본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상인 31명이 헌덕왕 6년(814) 長門國 豊浦郡에 도착하였다는⁵³⁾ 것을 시작으로 장보고가 태재부를 방문하거나, 흥덕왕 10년(835)에도 신라 상인이 壹岐島를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⁵⁴⁾

한편 9세기 전반기의 신라와 일본은 외교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애장왕은 3년(802) 金均貞을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하려 하였고,⁵⁵⁾ 다음해에는 일본과 사신을 교환하였고,⁵⁶⁾ 그리고 5년(804) 일본의 사신이 와서 황금 3백냥을 바친 기록이 있다.⁵⁷⁾ 일본의 사신은 애장왕 7년과 9년에도 왔다.⁵⁸⁾ 이와 같은 9세기 초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애장왕대의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애장왕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내 정세의 불안해소와 국왕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하였다.⁵⁹⁾ 하지만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신라의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태정관에서 836년 견당사의 배가 신라에 표착할 것을 대비하여 협조를 구하기 위해 紀三津을 신라에 파견하였으나⁶⁰⁾ 기삼진은 신라에서 축출되어 돌

52) 石井正敏, <八・九世紀の日羅關係>『앞의 책』, 1987.

53) 『日本後紀』권24, 弘仁 5年 10月 丙辰條.

54) 『續日本後紀』권4, 承和 2年 3月 己未條.

55)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 哀莊王 3年 12月條.

56)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 哀莊王 4年 7月條.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측의 기록은 없다. 다만 『日本後紀』권12, 延曆 23年 9月 己丑條에 전년의 견당사로 보낸 사신이 표류하여 신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협조해 달라는 사신을 보낸 기록은 있다.

57) 『三國史記』권10, 哀莊王 5年 5月條.

58) 『三國史記』권10, 新羅本紀 哀莊王 7年 3月條; 同王 9年 2月條.

59) 全基雄, <나말여초의 對日關係史 研究>『韓國民族文化』9, 1997, 6~9쪽.

60) 『續日本後記』권5, 承和 3年 5月 戊寅條.

아갔다.⁶¹⁾ 9세기 전반기에 이르러서도 신라와 일본의 대외관계는 공식적으로 단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일본의 사신이 신라에 온 사실은 『삼국사기』에 몇 차례에 기록되어 있다. 경문왕 4년(864)에 일본국의 사신이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⁶²⁾ 헌강왕 4년(878)에 일본의 사신이 왔는데 朝元殿에서 맞이하였고,⁶³⁾ 동왕 8년에 일본 국왕이 황금 3백냥과 야광주 11개를 바치기도 하였다.⁶⁴⁾ 반면 신라는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나 執事省의 첩만 있고, 국왕의 계가 없다는 이유로 되돌아 왔다.⁶⁵⁾ 이로 볼 때 9세기 후반 신라와 일본의 대외관계는 9세기 전반의 상황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라통일기 이후 신라와 일본과의 대외관계는 7·8세기중반까지는 국가간의 사신교환 등을 통한 공식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8세기 중반 이후 양국간은 외교형식의 문제로 갈등관계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9세기 신라의 대외관계는 양국간의 교류는 공식교류보다 교역을 위한 경제적 목적에서 추진되었고, 민간상인에 의해 주도되는 교류로 바뀌어 가는 양상이었으므로 9세기 이전의 대외관계와는 전혀 다른 양상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산지역도 9세기 민간교류에 편성하여 대외교류를 전개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61) 『續日本後記』권5, 承和 3年 12月 丁酉條.

62)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景文王 4年 4月條.

63)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憲康王 4年 8月條.

64)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憲康王 8年 4月條.

65) 『日本三代實錄』권47, 仁和 元年 6月 癸酉條.

Ⅲ. 대외교류의 발달과 부산

1. 대당·대일교류의 발달

앞 절에서 신라의 대당·대일관계는 일정한 시기에 따라 변화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당·대일관계의 전개는 사신의 왕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대당·대일의 문물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된다. 먼저 신라와 당과 전개된 문물교류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기 이후 신라와 당과의 대외관계는 단순한 조공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사절의 왕래와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여 양국 간에는 어느 정도 친선관계가 확립되었다. 친선관계는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양국 간에 다양한 사절의 파견으로 나타났다. 사절의 파견은 進貢과 回賜라는 물품의 교환을 수반하였고, 이에 따라 문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문물의 교류는 공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사적인 교역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한계로 잘 알 수 없지만 공적인 교류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⁶⁶⁾ 따라서 공적 교류를 통해 전체적인 물품의 교역의 현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 2>를 통해 검토하여 보자.

<표 2> 신라·당 사이에 교류된 물품

| 비 교 | 시 기 | 내 용 | 출 전 |
|------|---------|-------------------------------------------|----------|
| 수출품목 | 문무왕 12년 | 銀, 銅, 針, 牛黃, 金, 布 | 『삼국사기』권7 |
| | 성덕왕 22년 | 果下馬, 牛黃, 人蔘, 美髯, 朝霞紬, 魚牙紬, 鐵鷹鎗, 海豹皮, 金, 銀 | 『삼국사기』권8 |
| | 성덕왕 29년 | 小馬, 狗, 金, 頭髮, 海豹皮 | 『삼국사기』권8 |
| | 성덕왕 30년 | 牛黃, 金, 銀 | 『삼국사기』권8 |

66) 全海宗, <中國과 韓國>『韓中關係史研究』, 1977, 一朝閣, 14쪽.

| 비 교 | 시 기 | 내 용 | 출 전 |
|------|---------|---------------------------------------------------------------------------------------|-----------|
| 수출품목 | 성덕왕 33년 | 小馬, 狗, 金, 銀, 布, 牛黃, 人蔘, 頭髮, 海豹皮 | 『삼국사기』권8 |
| | 경덕왕 7년 | 金, 銀, 六十總布, 魚牙紬, 朝霞紬, 牛黃, 頭髮, 人蔘 | 『당회요』 |
| | 혜공왕 9년 | 金, 銀, 牛黃, 魚牙紬, 朝霞 | 『삼국사기』권9 |
| | 헌덕왕 2년 | 金銀佛像, 佛經 | 『삼국사기』권10 |
| | 경문왕 9년 | 馬, 麩金, 銀, 牛黃, 人蔘, 大花·小花魚牙錦, 朝霞錦, 白氎布, 紵衫段, 頭髮, 金釵頭, 五色綦帶, 斑胸, 鷹金鎖錠子, 粉錠, 紅帽 등의 다양한 물품 | 『삼국사기』권11 |
| 수입품목 | 문무왕 5년 | 紫衣, 腰帶, 彩綾羅, 絹 | 『삼국사기』권6 |
| | 문무왕 14년 | 曆法 | 『삼국사기』권7 |
| | 성덕왕 23년 | 錦袍, 金帶, 綵素 | 『삼국사기』권8 |
| | 성덕왕 32년 | 白鸚鵡, 紫羅繡袍, 金銀細器物, 瑞紋錦, 五色羅綵 | 『삼국사기』권8 |
| | 원성왕 2년 | 羅錦, 綾綵, 衣, 銀槿, 金線繡羅裙衣, 銀梳 | 『삼국사기』권10 |
| | 흥덕왕 2년 | 佛經 | 『삼국사기』권10 |
| | 흥덕왕 3년 | 茶 | 『삼국사기』권10 |
| | 문성왕 13년 | 佛經 | 『삼국사기』권11 |
| | 경문왕 5년 | 官詔, 旌節, 錦綵, 衣, 金·銀器 | 『삼국사기』권11 |

위의 <표 2>에서 주목되는 점은 신라에서 당, 당에서 신라로 보내는 물품의 종류가 차이가 있다. 당에서는 신라에 錦·綵와 같은 고급견직물과 금은세공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당의 고급견직물은 중고기에도 보내지고 있었다.⁶⁷⁾ 진평왕이 승하하였을 때

67) 중국의 고급견직물들은 통일기 이전에도 나타나는데, 왕실에서 ‘唐絹’을 賻儀로 보낼 정도로 거래량이 늘어났다(李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對中交涉> 『釜山女大史學』10·11, 97쪽).

비단 200필을 보내거나,⁶⁸⁾ 문무왕 5년 이찬 文王(문무왕의 3제)이 죽었을 때도 비단을 보내었다.⁶⁹⁾ 이러한 고급견직물은 통일기 이후 신라하대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물품은 지배층의 전유물이고, 그것을 소비하는 집단은 경주중심의 왕족을 비롯한 진골귀족이었다. 실제 당나라에서 錦·綵를 回賜할 때에는 왕족을 비롯한 진골귀족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은 경주 중심의 지배계층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역의 지배층은 소유·소비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반면 통일기 이후 신라의 대당교역물품은 아주 다양하고,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당의 回賜물품의 경우처럼 비단과 細布와 같은 고급 견직물류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앞의 <표 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덕왕·경덕왕대를 중심으로 그 변화가 나타난다.⁷⁰⁾ 대당 進貢물품의 변화는 고급 직물류를 생산할 수 있는 職官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陵色典 大舍 1인 … 朝霞房 母 23인이었다. 染宮 母 11인이었다. … 錦典 경덕왕이 고쳐서 직금방이라 했다가, 후에 옛날대로 회복했다’는 등의 여러 직관이 기록되어 있다.⁷¹⁾ 따라서 신라는 고급 견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관영공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급 견직물류는 당뿐만 아니라 거란, 발해, 일본 등지에도 수출되었다.⁷²⁾

둘째, 당에서 보내는 금·은의 세공품과 함께 금·은이 전혀 가공없이 원자재 그대로 보내진다는 점이다. 통일기 이후 신라는 사금과 은·동·철 등을 통일이전처럼 채굴하였다. 그것은 『三國史記』에 新村人 美盼이 중량 100분의 金 1개를 주었다는 기록과⁷³⁾

68)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 眞平王 55年 正月條.

69) 『三國史記』권6, 新羅本紀 文武王 5年 2月條.

70) 『三國史記』와 『三國遺事』를 살펴보면 신라의 견직물의 종류는 紗·羅·綾·絹·緇·綿·絲·紬·錦·綵·綺·絹 등이 있었다.

71) 『三國史記』권39, 雜志8 職官條.

72) 日野開三郎, <國際交流上より見た滿鮮の絹織物について> 『朝鮮學報』48, 1968.

73) 『三國史記』권8, 新羅本紀 孝昭王 8年 9月條.

경문왕 9년 麩金 100兩을 進貢하였다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⁷⁴⁾ 따라서 신라는 금과 은 등을 채굴하여 일부는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기도 하고, 일부는 원재료를 대당무역에 이용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셋째, 海豹皮 등의 짐승가죽과 우황·인삼 등의 약재, 그리고 두 발 등을 들 수 있다. 해표의 가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표를 잡아야 하고, 이를 통해 가죽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각 해안지역의 군현의 특산물로 수취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우황⁷⁵⁾과 인삼도 군현의 특산물로 수취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넷째, 果下馬·小馬·馬·개 등과 같은 짐승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⁷⁶⁾ 말의 경우 성덕왕 29년(730)에는 작은 말 5필, 성덕왕 33년에도 작은 말 2필, 경문왕 9년(869)에는 말 2필을 각각 보내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의 경우 말이 촌락마다 일정하게 사육되고 있었음은 『촌락문서』를 통해 알 수 있다.⁷⁷⁾ A촌의 경우 25필, B촌의 경우 18필, C촌의 경우 8필, D촌의 경우 10필이 각각 사육되었다. 촌락문서에 나타나고 있는 말은 농업용이라기보다는 특수목적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은 촌락에 사육되는 말의 경우 進貢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반면에 당으로 보내지는 말

74)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景文王 9年 7月條.

75) 우황은 『三國史記』권6, 新羅本紀 文武王 2年 2月條에 의하면 金庚信이 蘇定方에게 우황 19兩을 주었다는 기록도 있다. 따라서 우황은 일찍부터 신라의 특산품의 하나였던 것 같다.

76) 앞의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果下馬는 키가 작고 품질이 우수한 말이다. 과하마는 『三國志』魏志 東夷傳 濊傳에 ‘果下馬 高三尺 乘之可於果樹下行 故謂之果下’라고 하여 과하마가 3尺馬이고, 『三國志』魏書 高句麗傳에도 3척마를 과하마라고 한다. 몸체가 작은 소마가 果下馬의 名馬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산출되는 고유의 마필이 과하마이라고 한다. 반면 馬 즉 대말은 북방지역에서 전래된 말이라고 한다(南都泳, 『韓國馬政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6, 6쪽).

77) 李基百 편,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1987, 314~319쪽의 사진 자료를 참조.

은 최상의 품질을 가진 것만이 보내졌을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통일신라시대 명마의 사육과 일정한 관련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가>

- A) -金庾信의 적손 允中은 성덕왕 때 대아찬에 이르러 ... 마침내 윤중을 가까운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조부의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날이 저물어 돌려보냈다. 또 윤중에게 절영산의 말 1필을 내려 주니 여러 신하들은 불만스럽게 여겼다(『三國史記』권43, 列傳 金庾信傳)
- B) -견훤이 사신을 보내어 절영도의 명마 한필을 바쳤다(『高麗史』권1, 太祖 7年 8月條)
- C) -절영도는 동평현의 남쪽으로 8리에 있으며, 목장이 있다(『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동래현 산천조)

위의 자료 A·B)는 절영도가 통일신라의 대표적 명마의 생산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명마가 진골귀족과 왕에게 선물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C)는 명마를 기르는 절영도의 목장은 조선초기까지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시대 절영도의 목장은 누구의 소유지인지가 궁금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문무왕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 ‘말 목장 174곳을 나누어주었다. 所內에 22곳, 官에 10곳을 속하게 하고, 庾信 태대각간에게 6곳, 仁問 태각간에게 5곳, 각간 7인에게 각각 3곳, 이찬 5인에게 각각 2곳, 소판 4인에게 각각 2, 파진찬 6인과 대아찬 12인에게 각각 1곳을 나누어주고, 나머지 74곳은 적절하게 나누어주었다’고 한다.⁷⁸⁾ 문무왕은 목마장을 所內·官·진골귀족에게 분배하였다. 그런데 所內와 官은 관등과 구분되는 점으로 볼 때 특정 기관임을

78) 『三國史記』권6, 新羅本紀 文武王 9年 5月條.

알 수 있다. 말 목장은 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丘草嶋(武州의 아래)에 신라의 제3재상의 말 목장이 있다고 하거나,⁷⁹⁾ 『신당서』에 바다나 산 가운데 목축을 하고 있다는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전국의 도서지방에 산재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절영도는 오늘날 태종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태종대는 『동래부지(1740)』에 의하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라 태종무열왕이 활을 쏘아 帳布를 맞힌 곳’에서 유래한다. 이 같은 『동래부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절영도는 신라 중대의 왕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절영도의 목장은 진골귀족의 소유이기보다는 所內(왕실) 혹은 官의 소유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신라시대 절영도의 명마가 왕과 귀족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마는 신라의 대외교역, 즉 공적교역의 품목으로 가능하였다. 때문에 말의 생산지였던 부산은 8·9세기 직접 대외교류에 참여하기보다는 국가 혹은 왕실을 통한 간접적으로 대외교류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류의 발달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신라는 통일기 이후 일본의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신라와 일본의 대외교류는 양국의 대외관계가 우호적으로 전개된 시점에서는 국가간의 공적교역이 중심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시기에는 민간교역이 중심이었을 것이다.

먼저 양국의 국가간의 사신이 파견된 시기에 이루어진 공적교역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일기 이후 공적교역은 사신의 파견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국간의 사신의 파견은 앞 절에서 검토한 바 있다. 이때 사신의 왕래 때 교역된 품목은 『삼국사기』와 일본의 문헌자료에 다음의 사례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양국간의 교역의 실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79) 『入唐求法巡禮行記』, 847年 9月 6日條.

<표 3> 신라 · 일본 사이에 교류된 물품⁸⁰⁾

| 비교 | 시 기 | 내 용 | 출 전 |
|-------------|-------------|--------------------------------------------------|-----------|
| 수출 품목 | 天智 10년(671) | 水牛, 山鷄 | 『일본서기』권27 |
| | 天武 8년(680) | 金, 銀, 鐵鼎, 錦, 絹, 布, 皮, 馬, 狗, 騾, 駱駝, 刀, 旗 | 『일본서기』권29 |
| | 天武 10년 | 金, 銀, 銅, 鐵, 錦, 絹, 鹿皮, 細布, 霞錦, 幡, 皮 | 『일본서기』권29 |
| | 天武 14년 | 馬, 狗, 鸚鵡, 鵠 | 『일본서기』권29 |
| | 朱鳥 원년(686) | 細馬, 騾, 狗, 鍍金器, 金, 銀, 霞錦, 綾羅, 虎豹皮, 藥物, 屏風, 鞍皮, 絹布 | 『일본서기』권29 |
| | 持統 2년(688) | 金, 銀, 絹布, 皮, 銅, 鐵, 佛像, 彩絹, 鳥馬 | 『일본서기』권30 |
| | 持統 3년 | 兒彌陀像, 觀世音菩薩像, 大勢至菩薩像, 綵帛, 錦, 綾 | 『일본서기』권30 |
| | 天平 4년(732) | 鸚鵡, 鴝鵒, 蜀狗, 獺狗, 驢, 騾 | 『속일본기』권11 |
| 수입 품목 | 天智 7년(668) | 絹, 綿, 韋 | 『일본서기』권27 |
| | 天智 10년 | 絹, 純, 綿, 韋 | 『일본서기』권27 |
| | 天武 원년(673) | 船 | 『일본서기』권28 |
| | 和銅 2년(709) | 絹, 美濃純, 絲, 綿 | 『속일본기』권4 |
| | 靈龜 원년(715) | 綿, 船 | 『속일본기』권6 |
| | 神龜 4년(726) | 黃純, 綿 | 『속일본기』권9 |
| | 寶龜 원년(770) | 純, 絲, 綿 | 『속일본기』권30 |
| | 애강왕 5년(804) | 黃金 | 『삼국사기』권10 |
| 현강왕 8년(882) | 黃金, 明珠 | 『삼국사기』권11 | |

위의 <표 3>에서 신라와 일본간의 공적교역에 대한 실상은 일본측의 자료에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는 일본에서 보낸 품목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양국간의 물

80) <표 3>은 구체적인 품목이 있는 기록만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실제 일본의 자료에는 신라에서 調를 바쳤다는 기록이 많지만 실제적인 품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표 3>의 작성에서는 배제시켰다.

품의 교류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을 살필 수 있다.

첫째, 일본과의 공적교역은 당과의 교역과는 달리 7세기 후반과 8세기 전반까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일본과 대외관계가 8세기 후반 이후에는 공적으로 사신의 왕래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류도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시기 일본은 발해와 대외관계를 통해 활발한 물품의 교역을 하고 있었다.⁸¹⁾

둘째, 신라에서는 일본에 金·銀·銅 등의 광물과 그 세공품, 馬·狗·驪(노새) 등과 같은 다양한 짐승, 고급 견직물류 등의 아주 다양한 물품을 교역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보내졌던 인삼·우황 등의 약재류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신라의 대외관계에 있어 당과 일본과의 관계를 일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당에 대해서 극진한 예를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본에서 신라로 보낸 물품은 絹, 綿, 紵, 絲 등의 거친 견직물과 9세기 초에 이르러 황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신라에서는 고급 견직물류를 보내었다면 일본에서는 신라에 거친 견직물을 보냈다. 일본은 천평 12년(740) 발해의 군왕에게 美濃紵·絹·絲·調綿 등을 보내었고,⁸²⁾ 天平寶字 4년(760)에도 紵·美濃紵·絲·調綿 등을 보내고 있다.⁸³⁾ 이는 8세기 일본의 대표적 교역품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신라와 발해에 보내었을 것이다. 7·8세기 단계 신라와 일본의 견직물 기술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신라와 당·일본과는 이와 같은 공적교역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신의 왕래할 때에는 사적교역 즉 민간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였지만 신라 경덕왕 11년(752) 3월에 왕자 대아찬 金泰廉은 7척의 배로 일행 700여명을 거

81) 酒寄雅志, <九·十世紀の日本の国際關係>《ろじろ遊学》26, 2001, 81~83쪽.

82) 『續日本記』권13, 天平 12年 正月 甲午條.

83) 『續日本記』권22, 天平寶字 4年 正月 己巳條.

느리고 일본에 도착한 이후⁸⁴⁾ 6월에는 370여명을 대동하고 平城京으로 가서 천황에게 조를 바쳤다.⁸⁵⁾ 이때의 사신의 수는 일본에 파견된 사신의 규모 면에서 전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규모로 구성되었다. 이 대규모의 사신의 일행 중에는 왕성의 商人 또는 도중에 합류한 다수의 무역상인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⁸⁶⁾ 이때 신라 사신이 가지고 온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일본의 귀족이 작성한 ‘買新羅物海’가 현존하고 있다.⁸⁷⁾ 현재까지 발견된 문서들은 天平勝寶 4년(752) 6월 15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작성되어 제출된 것이다.⁸⁸⁾ 다음의 자료들은 민간교역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⁸⁹⁾

<나>

A) 1번

金 蘇芳 小鏡 合 3種

直物 綿六百十斤

天平勝寶四年六月十五日知家事資人大初位上栗前首□□

B) 7번

念物五六寸鏡 丁香 □□□

蓴撥 木槌子 □□ 如意 蠅佛

蘇芳 紫根

直綿貳伯屯

84) 『續日本記』권18, 天平勝寶 4年 3月 己巳條.

85) 『續日本記』권18, 天平勝寶 4年 6月條.

86) 濱田耕策, <新羅の中・下代の内政と對日本外交-外交形式と交易をめぐって-> 『新羅國史の研究-東아시아史の視點から-』, 吉川弘文館, 2002, 348~351쪽.

87) 東野治之, <鳥毛立屏風下貼文書の研究-買新羅物解の基礎的考察-> 『史林』 57-6, 1974.

88) 皆川完一, <買新羅物解拾遺> 『正倉院文書研究』, 1994.

89) 위의 자료는 다음의 책에서 인용하였는데(池田溫, <天寶後期の唐・羅・日關係をめぐって>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 78~91쪽), 이외에도 23건의 자료가 더 있다.

右件念物并直數如前以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日

C) 11번

合貳拾參種

鏡參綿 徑六寸已下五寸已上

白銅五重鏡貳帖 口徑五寸已下

迺羅盤伍□ 口徑五七寸

白銅香 壹具

黃金五兩

朱沙壹斤

薰陸壹拾伍斤

呵梨勒貳伯顆

木槌子壹仟貳伯玖拾陸顆

牙鏤梳壹拾箇

口脂壹箇 長一尺

蘓芳貳伯肆拾斤

儲價物綿伍伯斤

以前可買新羅物并儲價等如前謹解

天平勝寶四年六月廿三日

迺羅五重鏡參帖 口徑五寸已下

白銅盤壹拾伍□ 口徑六寸

白銅匙箸貳具

白銅錫杖壹箇

麝香參臍

同黃壹斤

人蔘肆斤

松子壹斛伍(斗)

蜜汁貳(斗)

牙鏤草子貳拾箇

鐵精壹斤

絲參拾斤

위의 자료 A·B·C)는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의 일부로 자료 A)에서는 3종, B)는 정확한 물품의 수는 알 수 없고, C)는 23종을 구매하고자 하였다. 위의 자료를 포함하여 문서에 기록된 물품의 종류는 香料, 藥品, 顔料, 染料, 金屬類, 武器, 일반 생활용품, 織物, 書籍, 動物, 鳥類, 고급비단 등 100여종으로 신라에서 생산되는 물품뿐만 아니라 중국, 동남아시아, 서역 등지에서 생산되던 물품도 포함되어 있다.⁹⁰⁾ 이는 8세

90) 東野治之, <앞의 논문>, 1974, 16~17쪽; 崔在錫,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一志社, 1996, 윤선태, <앞의 논문>, 47쪽.

기 신라의 무역상들이 중개무역을 활발히 전개하였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8세기 신라의 무역상들은 국가적 통제하에서 신라에서 생산된 물품·중개 교역된 물품 등을 취급하면서 일본에서 활발한 교역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신라의 물품을 매입하고 지불한 대가는 앞의 세 자료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주로 絲·綿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앞의 <표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絲·綿이 일본에서 신라로 보낸 공적 교류의 품목과 거의 유사하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교역의 주요 품목이었다. 다음의 자료는 그러한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민간교역이 발달하였음을 암시한다.

<다>

左右大臣에게 太宰의 綿 각 2만屯, 大納言 諱와 弓削御淨朝臣 清人에게 각각 1만屯, 從 2位 文室眞人淨三에게 6천屯, 中務卿 從 3位 文室眞人大市·式部卿 從 3位 石上朝臣宅嗣에게 4천屯, 正4位下 伊福部女王에게 1천屯을 주어 신라의 교역물을 사게 하였다(『續日本記』권29, 神護景雲 2年 10月 甲子條)

위의 자료는 神護景雲 2年(768) 좌우대신들에게 면을 지급하여 신라의 교역물을 구매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와 일본 사이에 공적인 외교가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그런데 공적 외교의 단절 상황 하에서 일본 정부가 좌우대신에게 綿을 지급하여 신라의 물품을 구매하게 한 것은 민간의 사적교역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일본 내에서 신라의 물화에 대한 욕구와 일본의 면에 대한 신라의 수요가 많았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신라와 일본 양국간에는 공적 교역과 함께 민간교역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과 민간교역의 발달은 민간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었다. 민간교류는 앞에서도 간단하게 서술한 것처럼

럼 9세기에 상당할 정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민간교류는 신라의 왕권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외교류도 평안경이 아니라 태재부를 중심으로 한 일본 서쪽의 연안지역이었다. 따라서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상인 혹은 지배자들도 발달된 대외교류에 편성하여 대외교역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기 이후 신라의 대당·대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대외교류가 발달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간에는 공적교역 뿐만 아니라 민간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대외교류의 주도세력

앞에서 9세기에 이르러 민간교역이 활발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이 같이 민간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부산지역에서는 어떠한 세력이 민간교역을 주도하였는지를 살펴보자.

신라의 사신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당·일본에 파견될 때 대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었다.⁹¹⁾ 이러한 사신단 중에는 양국간의 대외관계의 개선에 중점을 둔 경우도 있지만 교역에 관심을 가진 상당수의 상인들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대외교역이 발달한 8·9세기는 상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 중대나 혹은 하대의 지방 호족세력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외교역에 참여하는 상인의 대부분은 왕경의 진골귀족과 연관을 가졌을 것이다. 이시기의 대외교역은 왕경 주위에 있는 진골귀족이 주도하였고, 각 지역에서 산출되는 물품의 대외교역도 이들 왕경의 진골귀족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는 부산지역의 상인이 독

91) 8세기 말기인 寶龜 7年(771, 혜공왕 7)에도 325명의 사절이 파견되어 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가 온 것은 무역에 대한 목적이었다고 한다(東野治之, <日唐間における渤海の中繼貿易>『日本歴史』438, 1984).

자적으로 대외교역을 전개하였다기보다는 왕경의 진골귀족과 연결된 상인을 통한 간접교류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신라 하대에는 왕경의 진골귀족과 연결된 상인이 대외교역에 참여하였던 반면 각 지방의 지방세력들도 독자적으로 대외교류를 전개하였다. 그러한 지방세력 중에서 대외교류를 담당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해진의 장보고였다.⁹²⁾ 장보고는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對唐·對日의 해상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 장보고가 문성왕 8년(846)에 살해되고,⁹³⁾ 문성왕 13년에는 청해진이 폐쇄되어 그곳의 백성들이 碧骨郡으로 집단 이주되었다.⁹⁴⁾ 따라서 장보고의 청해진은 독점적으로 남해·서해안의 무역을 지배해 온 역할을 상실하였다.⁹⁵⁾ 하지만 청해진의 폐쇄이후 대외교역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약화되면서 남해·서해안의 여타지역에서 발달할 수 있었다.⁹⁶⁾

남해안은 부산의 인근지역인 金州(현 김해), 康州(현 진주), 그리고 울산 등지에서 대외교류가 발달하였다. 김해에서는 진성여왕 말년 혹은 효공왕 초년에 金仁匡이 ‘知金海府進禮城諸軍事明義將軍’직을 가지고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였고, 연이어 蘇忠子·蘇律熙 형제가 효공왕 10년(910)을 전후하여 등장하였다. 소충자를 계승한 소율희는 ‘金海府知軍府事’ 혹은 ‘知進禮城諸軍事’의 직을 가지고 김해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다.⁹⁷⁾ 김해의 지배세력은 발달한 대외교역을 바탕으로 李彦謨를 ‘新羅登州知後官 本國金州司馬

92) 장보고의 대외교역에 대한 연구성과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생략한다.

93)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文聖王 8年條.

94) 『三國史記』권11, 新羅本紀 文聖王 13年 2月條.

95) 장보고의 몰락을 초래한 직접적 요인은 그의 중앙정치로의 진출 야망에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서남해안지방의 군소 해상세력의 장보고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다(尹載云, <앞의 논문>, 46쪽).

96) 서해안 지역의 대외교섭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朴漢高, <羅末麗初의 西海岸交涉史研究>『國史館論叢』7, 1989).

97) 崔柄憲, <新羅末 金海地方的 豪族勢力과 禪宗>『韓國史論』4, 1978.

李彦謨 並檢校右散騎常侍'로⁹⁸⁾ 파견하여 장보고의 세력기반이었던 적산촌이 속해 있던 登州와 김해의 경제적인 교역활동을 담당하게 하였다.⁹⁹⁾ 따라서 김해의 호족세력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였을 것이다. 김해의 호족세력은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선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이시기 김해지방이 선종의 요람지로 거듭나게 되었다.¹⁰⁰⁾

진주에서는 王逢規가 독립적인 호족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왕봉규는 신라 景明王 8년(924) 진주절도사로서 後唐에 방물을 바쳤다.¹⁰¹⁾ 후당에 방물을 바치면서 자신을 절도사로 칭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景哀王 4년(927)에는 權知康州事로서 後唐 明宗으로부터 懷化大將軍의 직을 하사받았다.¹⁰²⁾ 이는 왕봉규가 강주를 독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로 성장하였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후당과 적극적인 대외교류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⁰³⁾ 따라서 왕봉규는 강주의 호족세력으로 등장하여 중국의 대외교역을 전개하면서 정치적 지위도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도 축적하였을 것이다.

울산은 일찍부터 신라의 중요한 대외무역항이었다. 울산의 호족세력은 朴允雄이 대표된다.¹⁰⁴⁾ 울주는 고려 태조 때 朴允雄의 공으로

98) 『五代會要』권30, 新羅 天成 2年 3月條.

99) 신라의 무역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김해지방의 호족세력의 무역항으로 존재하였을 것이다.

100) 崔柄憲, <앞의 논문>.

101) 『三國史記』권12, 新羅本紀 景明王 8年 正月條.

102) 『三國史記』권12, 新羅本紀 景哀王 4年 3月條.

103) 金庠基, <羅末地方群雄의 對中通交-특히 王逢規를 중심으로-> 『東方史論叢』,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金庠基는 왕봉규가 처음 泉州(경남 의령)에서 세력을 확대하여 점차 강주를 지배하기에 이르렀다고 파악하고 있다.

104) 李佑成, <三國遺事所載 處容說話의 一分析> 『韓國中世社會研究』, 一朝閣, 1991; 具山祐, <羅末麗初의 蔚山地域과 朴允雄> 『韓國文化研究』5, 1992.

주변의 東津·虞風 2현을 합하여 興麗府로 승격되었다.¹⁰⁵⁾ 따라서 박윤웅은 울산지역의 대표적 호족세력으로 군사적·경제적기반을 가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박윤웅이 대외교역을 전개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울산지역이 일찍부터 신라의 무역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울산지역의 대표적 호족세력인 박윤웅도 신라하대 발달한 대외교류를 틈타 대외교역을 전개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이처럼 신라하대에 이르러 각 지역의 호족세력은 발달된 대외교류를 토대로 독자적으로 대중·대일교역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호족세력도 대외교역을 전개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부산의 호족세력은 위에서 언급한 김해·울산·강주와 같은 대호족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만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동래현의 토성으로 ‘鄭·宋·玉·丁·曹’ 등이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¹⁰⁶⁾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인물조에 ‘鄭文道는 음에 속하였던 향리였는데, 세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으며, 무덤은 현의 서쪽 7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⁰⁷⁾ 따라서 동래를 본관으로 하는 정문도는 동래지역을 대표하는 호족세력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정문도의 父인 정지원은 안일호장이었다. 邑吏와 안일호장 등은 모두 고려전기의 향리의 신분으로 대표적인 지방세력이었다. 지방세력은 신라하대에 각 지방에서 등장한 호족세력으로 성종 2년 吏職의 개편에 의해 향리로 격하되었다.¹⁰⁸⁾ 따라서 동래를 본관으로 하는 동래정씨의 정문도 家는 신라하대의 이후에 동래지역을 지역적 기반으로 등장한 대표적 호족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래는 삼한·삼국초기에 瀆盧國 혹은 居柒山國이 존재하였는데, 연산동·북천동고분군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치권력을 가진

105) 《新增東國輿地勝覽》권22, 蔚山郡.

106) 『慶尙道地理志』慶州道 東萊縣 土姓條.

107) 『新增東國輿地勝覽』권23, 東萊縣 人物條.

108) 『高麗史』권75, 選舉2 鄉職 成宗 2年條.

지배세력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소국의 지배세력은 신라에 병합될 때까지 왜·낙랑·대방 등과 활발한 대외교류를 전개하였다.¹⁰⁹⁾ 이들 소국의 지배세력은 신라의 대북속민 지배책에 의해 경주로 徙民되었거나 아니면 동래지역의 지배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신라의 균현제의 지배체제 속에 편제되어 수령의 행정을 보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라하대의 지방통제력이 이완되자 이들은 동래의 지역적 기반을 통해 인근의 호족세력처럼 독립적인 호족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동래정씨의 정문도 家는 동래지역의 지리지류 혹은 『고려사』 등의 자료에 성주 혹은 장군 등으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신라하대 각 지역에서 등장하는 호족세력은 세력의 여하에 따라 성주·장군·수 등으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동래정씨의 정문도 家는 인근의 김해·진주지역의 호족세력과 같은 대호족이라기보다는 군소호족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 관반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한편 동래의 호족세력인 동래정씨는 신라하대 민간교류의 발달에 편성하여 김해·진주의 호족세력처럼 독자적인 대외교역을 전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동래의 호족세력은 중국과의 교역보다 오히려 부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일교역에 중점을 두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후삼국시기의 정세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후삼국시기 견훤은 일찍이 동남해안인 진례·동래 등을 장악하려 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역들을 정복하였는데, 이 지역은 신라를 공격할 수 있는 주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견훤이 일본과 대외교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필요하였다. 견훤은 922년 輝岳을 대마도에 파견하였고,¹¹⁰⁾ 929년에는 張彦澄을 대마도에 파견하였다.¹¹¹⁾ 견훤의 대일교섭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

109) 허계혁, <앞의 논문>; 선석렬, <앞의 논문>.

110) 『扶桑略記』권20, 延喜 22年 5月條.

111) 『扶桑略記』권26, 延長 7年 5月 17日條.

으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을 것이다. 이 같은 견훤의 대일교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부산지역을 그 중심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는 일찍부터 부산지역의 호족세력이 대일교역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견훤이 대일교섭의 창구로 삼았다.

부산의 호족세력인 동래정씨의 중요 교역품은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품목인 절영도의 말이라고 추측된다. 절영도의 말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신라중대부터 왕의 선물로도 이용되었고, 후삼국시기에도 견훤이 왕건에게 줄 정도로 진귀한 물품이었다. 따라서 절영도의 말은 부산지역의 호족세력인 동래정씨가 대일교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산품인 여러 가지 물품들도 대외교역의 중요 품목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래정씨의 대외교역도 후삼국시기 이 지역이 견훤의 지배를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대외교역을 전개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V. 맺 음 말

이상에서 삼국·동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신라는 통일이전 당과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나당연합전선을 구축하였으나 통일이후 옛 영토회복이라는 정책으로 당과 대립하면서 불편한 관계가 야기되었다. 하지만 신라는 성덕왕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당관계를 우호적으로 전환시키면서 활발한 대외교류를 전개시켰다. 반면 신라의 대일관계는 통일이기 이후 7·8세기 중반까지 우호적이었으나 8세기 후반에 외교형식을 두고 갈등관계였다. 하지만 이후 일본과의 교류는 민간교

류가 발달함으로써 국가 간의 공적교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둘째, 신라의 대당·대일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면서 대외교류도 발달하였다. 대외교류가 발달함으로써 대외교역이 발달하였다. 대외교역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주요물품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교역의 방식과 품목에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교역의 방식에서는 신라 중대에는 국가의 공적교역이 대외교역을 주도한 반면에 하대에는 국가의 주도에 의한 공적교역보다는 점차 민간교역이 주도하였다. 품목에서도 신라의 대당·대일교역에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대에 민간교역이 발달하면서 부산의 호족세력인 동래정씨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여 대외교역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대외교역은 대당교역보다 지역적 이점을 고려할 때 대일교역에 중점을 두었다. 동래정씨의 대외교역의 주요한 품목은 절영도의 말일 가능성이 많다.

이상에서 부산지역의 대외교류를 검토하였는데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추측이 너무 많았다.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고고학적 출토 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후 이러한 한계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자 한다.